

**The Gospel of Mark – Sermon Notes**

Sermon 37

Title: “The Transfiguration”

Scripture: Mark 9:1-13

Date preached: May 21st 2023

**Scripture: Mark 9:1-13**

**1** And He said to them, “Assuredly, I say to you that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

**2** Now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on a high mountain apart by themselves;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3** His clothes became shining, exceedingly white, like snow, such as no launderer on earth can whiten them. **4** And Elijah appeared to them with Moses, and they were talking with Jesus. **5** Then Peter answered and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and let us make three tabernacle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6** because he did not know what to say, for they were greatly afraid.

**7** And a cloud came and overshadowed them;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8** Suddenly, when they had looked around, they saw no one anymore, but only Jesus with themselves.

**9** Now as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the things they had seen, til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10** So they kept this word to themselves, questioning what the rising from the dead meant.

**11** And they asked Him, saying, “Why do the scribes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2** Then He answered and told them, “Indeed, Elijah is coming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And how is it written concerning the Son of Man, that He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treated with contempt? **13** But I say to you that Elijah has also come, and they did to him whatever they wished, as it is written of him.”

**1**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 몇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3** 그 옷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4**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5**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7**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8**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9**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다.

**10**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11**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

**Review**

Before we look at our passage of scripture for today let us briefly review where we are in Mark's gospel. Last time we finished chapter number 8.

We had just read about Peter's amazing confession. The confession took place somewhere in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When the Lord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they thought He was Peter spoke up and said He wa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n saying this Peter, representing all the disciples was affirming that Jesus was the anointed one, the Messiah. This amazing insight given to Peter by the Father represents a turning point in the gospel. From this point on Jesus' primary focus or attention shifts to the cross. It's shadow looms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In the short time He had left He must prepare the disciples to carry on when He is gone.

Now that they understand His true identity Jesus can now reveal to them His purpose and mission. He begins by plainly or openly explaining what will happen. He will be rejected by the hard-hearted religious leaders of Israel, He will then be killed and three days later rise again. As I said before this information does not mesh with the disciples messianic expectations. In psychological terms we refer to this as “cognitive dissonance.” This term describes the feeling of discomfort we feel when we have two conflicting ideas or beliefs in our minds at the same time. So in this case the disciples held the traditional view of their day that the messiah would be a mighty warrior. They expected that he would be a charismatic military or political leader who would lead them to overthrow their oppressors. This stood in stark contrast to the messianic figure Jesus described. Jesus spoke of a suffering messiah. One who would die without leading the people to a great military victory. This is something the disciples simply cannot accept. Jesus, they conclude must surely be in error.

Peter, again acting as the groups spokesperson steps forward. Taking Jesus aside He begins to strongly rebuke Him. It's worth just pausing for a moment to think about this. Shortly before He had recognised Jesus as being the Messiah, the one God sent as saviour. Now he is daring to try and rebuke Him and tell Him He must be mistaken. What hubris. But just a moment. Don't we sometimes fall into Peter's mistake. Don't we think and act as if we know better than God. Don't we presume to tell God His business. What hubris on our part too.

Peter is quite rightly sternly chastised by the Lord Jesus. Peter you see, albeit unwittingly has become a tool for Satan. It's very easy to do. All it takes is for our thoughts to switch from the will of God to our own fleshly wants or desires. Peter had not openly asked for the evil one to enter and control him. He had not even thought consciously about expressing a wicked idea. All he had done was put the thoughts of man above the will of God. Peter wanted a political, military Messiah. God's plan was for a suffering Messiah. In adopting this position Peter was now a stumbling block to Jesus. As such the Lord Jesus tells him to get back or behind Him. Nothing could hinder or hamper His journey to the cross.

From here Jesus launches into a series of teachings directed not only to His chosen disciples but more generally to anyone wanting to follow Him. The path a being a true disciple of Jesus is a difficult one. In order to follow Christ one must give up self and live for Him and service to the Kingdom. It is a high cost to pay, many “earthly” pleasure have to be given up or lost. Some look at the cost of true discipleship and give up. The attraction of earthly trinkets and treasures is too alluring. However those who do decide to follow Christ have much to gain. They have the reward of a glorious eternity to look forward to. This was where we finished last time.

Today our focus is Jesus amazing transfiguration. Before we turn to this let us pray.

오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8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 읽었습니다.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어딘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여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확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통찰은 복음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주요 초점 또는 관심은 십자가로 이동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남겨진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분이 가셨을 때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했으므로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목적과 사명을 그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명백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실은 제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마음속에 상충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믿음이 동시에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제자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전사가 될 것이라는 당시의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압제자들을 타도하도록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군사 또는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묘사하신 메시아적 인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큰 군사적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죽을 자. 이것은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강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죠. 조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담하게 그분을 꾸짖고 예수님이 실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만일까요. 하지만 잠시만요.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의 실수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일을 감히 말하지 않나요? 우리도 얼마나 오만한지요.

베드로는 주 예수께 엄히 징계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구나 욕망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자기에게 들어와 제어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사악한 생각을 표현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일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선택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로 향하는 그분의 여정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며 왕국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많으며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댓가 때문에 포기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의 매력은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원의 상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 And He said to them, “Assuredly, I say to you that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til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

As I am sure you are aware the chapter and verse divisions in our bibles were not in the original manuscripts. The chapter divisions we use today are usually credited to Stephen Langton, who was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from 1207-1228. His chapter divisions were used in the Wycliffe English Bible of 1382 and have been used in nearly all versions since. Verse divisions for the New Testament came about a little later. The verse divisions we use today originated with Robert Estienne (or Stephanus), who included them in the printing of his Greek New Testament in 1551.

In most cases the divisions are quite natural, don't impair our reading, or seem strange or misplaced. Here though we have a rare instance of a verse clearly belonging to the preceding chapter. This verse is clearly the end of the discourse that Jesus is having with the chosen disciples, and other potential followers about the costs and rewards associated with following Him. Still we have this division in our contemporary bibles so let us consider what Jesus says.

This verse has puzzled many. It appears to say that some of those listening to Him speak would not die before they saw Christ reign (be present) in power and glory. This is of course a reference to his second coming. His first coming saw Him come in the guise of a suffering servant. When He comes again it will be in glory as a king. We are of course still eagerly awaiting His return and, none of the original disciples are still with us today. It's been 2000 years and we are still waiting. So what is Jesus referring to here? The best explanation I believe is that Jesus is referring here to the brief preview of His future glory and power that He gives to a select few of His disciples. I am of course referring to the “transfiguration.” Here the Lord Jesus gives Peter, James and John a sneak peek at what things will be like when He is present with power. So His prediction as given in this verse is fulfilled. Some of those standing with Him did not die before seeing Him present with power. Let us move on and look at this amazing event.

**1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이 원래 원고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 구분은 일반적으로 1207-1228 년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Stephen Langton 이 맡았습니다. 그의 장 구분은 1382 년 위클리프 영어 성경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거의 모든 번역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의 절 구분은 그보다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절 구분은 Robert Estienne(또는 Stephanus)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는 1551 년 그리스어 신약 인쇄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과 절 구분은 매우 자연스럽고 읽기에 방해가 되거나 이상하거나 잘못 배치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이지만 오늘 이 구절은 이전 장에 속하는데 새로운 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댓가와 보상에 대해 제자들과 잠재적 추종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의 끝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고통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왕으로서 영광 중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최초의 제자 중 누구도 현재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2000 년이 지났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타당한 설명은 예수께서 여기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미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짧은 미리보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변모 transfiguration"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가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 어떠할 것인지 살짝 엿보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중 몇명은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은거죠. 계속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Now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on a high mountain apart by themselves;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3 His clothes became shining, exceedingly white, like snow, such as no launderer on earth can whiten them.**

The importance of the transfiguration event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all three synoptic gospels record its details (Matt 17:1-13, Luke 9:28-36).

2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3 그 옷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변형 사건의 중요성은 세 개의 공관 복음서 모두가 그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마 17:1-13, 눅 9:28-36).

Matthew 17:1-13	Luke 9:28-36
<p>Now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his brother, led them up on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2 and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3 And behold, Moses and Elijah appeared to them, talking with Him. 4 Then Peter answered and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let us make here three tabernacle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p> <p>5 While he was still speaking, behold, a bright cloud overshadowed them; and suddenly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Hear Him!" 6 And when the disciples heard it,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were greatly afraid. 7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and said, "Arise, and do not be afraid." 8 When they had lifted up their eyes, they saw no one but Jesus only.</p> <p>9 Now as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Jesus commanded them, saying, "Tell the vision to no one until the Son of Man is risen from the dead."</p> <p>10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Why then do the scribes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1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Indeed, Elijah is coming first and will restore all things. 12 But I say to you that Elijah has come already, and they did not know him but did</p>	<p>28 Now it came to pass, about eight days after these sayings, that He took Peter, John, and James and went up on the mountain to pray. 29 As He prayed, 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and His robe <i>became</i> white and glistening. 30 And behold, two men talked with Him, who were Moses and Elijah, 31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decease which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32 But Peter and those with him were heavy with sleep; and when they wer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who stood with Him. 33 Then it happened, as they were parting from Him, <i>that</i> Peter said to Jesus,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and let us make three tabernacle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not knowing what he said.</p> <p>34 While he was saying this, a cloud came and overshadowed them; and they were fearful as they entered the cloud. 35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36 When the voice had ceased, Jesus was found alone. But they kept quiet, and told no one in those days any of the things they had seen.</p>

<p>to him whatever they wished. Likewise the Son of Man is also about to suffer at their hands.”</p> <p>13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spoke to them of John the Baptist.</p>	
---	--

The accounts are very similar with just a few minor differences between them. Let us now look at this event.

It took place six days after the discourse involving Peter's rebuke. Luke says it was about eight days. This seeming discrepancy may be understood if we assume that Luke is including the day of the lesson and the day of the transfiguration itself. Or it may just mean we are picking up the story about a week later.

Jesus took three of the disciples, Peter, James and John up onto a high mountain. It may have been Mount Hermon which is the highest mountain in Israel rising to a height of 2,813 meters above sea level. If you want to enjoy winter sports in Israel this is where the nations only ski resorts can be found. It makes good sense to think it was this mountain. The city of Caesarea Phillipi, where Peter's confession took place stood at the base of Mount Hermon.

An alternative tradition claims that the transfiguration took place on Mount Tabor, near Nazareth. Mount Tabor would hardly qualify as a “high mountain” standing at just 580 metres above sea level. It's also some distance from Caesarea Phillipi, around 90 km. However since the bible is not explicit we cannot determine exactly which upon which mountain the transfiguration occurred.

That it was a “high mountain” evokes Moses on Mount Sinai (Exod 24:15-18) and also Elijah on Mount Horeb. Both prophets encountered God in a high place.

Why did the Lord Jesus pick these particular three disciples? Why not allow all the disciples to witness this amazing event? As we have noted before Peter, James and John made up Jesus “inner circle.” They alone accompanied Him on several significant occasions. We think for example about the raising of Jairus daughter (Luke 8), an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Matthew 26). That He repeatedly chose these three indicates that He enjoy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m. We know from our own experiences that whenever we are placed within a large group there are certain people we make better connections with. We feel closer to some than others. One interesting suggestion I read whilst researching was that these three were the ones most likely to cause trouble. Therefore Jesus wanted to keep them close by at all times. I don't think there is much to this suggestion. I am more inclined to think that Jesus chose them because it was something necessary for their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e Lord Jesus took them in order to train or prepare them for the future.

Whilst on the mountain, in this high place Jesus is transfigured before them. The word Mark uses here for “transfigured” is the Greek word *metamorphoō*. It looks familiar to you I'm sure. It is where we get our English word "metamorphosis." If you have ever studied biology you will know what that word means. It refers to a change of physical form, structure, or substance in a creature. The most obvious example in the natural world is the butterfly. It changes from a plump caterpillar into a beautiful winged insect. Here we see that Jesus was changed before the disciples.

Mark does his best to describe what the transfiguration looked like. Let us be honest and say that his description is somewhat lacking. But in fairness to him he is describing something far outside our normal realm of experience. How would we describe the manifestation of a fraction of God's glory. I think, like Mark that we would struggle. Mark tells us that Jesus' clothes became brilliantly or dazzlingly white. If you've ever been out and looked at fresh snow under bright sunlight you get something of the effect. He also describes the whiteness as being whiter than any launderer could make it. I have a few once white undershirts that could use such a launderer.

Whenever we see pictures in books or movies and TV shows depicting people in Jesus day they are commonly depicted wearing white clothing. How realistic is this? Think about it for a moment. Is white a practical colour for working people to wear? No, for obvious reasons. It's get dirty or

stained easily, and is hard to keep clean. So in all probability most working people wore darker colours and this is may be why Mark chooses this way to describe Jesus appearance. It would have been very unusual to have seen anyone wearing gleaming white clothes.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we see some parallels with how the prophet Daniel describes the Ancient of Days (God).

**“I watched till thrones were put in place,  
And the Ancient of Days was seated;  
His garment *was* white as snow,  
And the hair of His head *was* like pure wool.  
His throne *was* a fiery flame,  
Its wheels a burning fire;  
(Dan 7:9)**

Matthew in his gospel adds that, **“His face shone like the sun.”** That's a very important detail. You see we sometimes mistake what is happening here. We wrongly think that Jesus appeared so bright because an external light was being shone upon Him.

I once worked in a theatre. When there was a performance or a concert there were many backstage jobs to do. For one particular concert I was given control of one of the large spotlights. I was told though headphones where, and upon whom to direct it. When for example the guitarist was playing a solo I would focus the spotlight and direct the audiences attention upon this particular musician. The guitarist appeared to shine because my external light illuminated him.

That is not what is happening with Jesus. The reason He appeared to shine so brightly is because the light was coming from within Him. It was you see a revelation of part of His divine glory. Let us read on.

이 이야기들은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6 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그것이 약 8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베드로를 책망한 날과 변모의 날 자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약 1 주일 후에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발 2,813 미터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전국 유일의 스키장인 이곳에 가면 됩니다. 이 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르몬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변모가 나사렛 근처의 다불 산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다불 산은 해발 580 미터에 불과하니 "높은 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이사라 필리피(Caesarea Philippi)에서 약 90km 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산에서 변모가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높은 산"이었다는 것은 시내 산의 모세(출애굽기 24:15-18)와 호렙 산의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두 선지자 모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주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모든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멤버 inner circle”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중요한 경우에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것(누가복음 8 장)과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 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분이 반복해서 이 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큰 그룹에 속할 때 소수의 특정한 사람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명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았을 거라고 말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항상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제안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산에 있는 동안 이 높은 곳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가가 사용한 "변모 transfiguratio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metamorphoo 입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 "metamorphosis"를 얻는 곳입니다. 생물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생물의 물리적 형태, 구조 또는 물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분명한 예는 나비입니다. 통통한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날개 달린 곤충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것을 봅니다.

마가는 변모된 모습이 어땠는지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면 그는 우리의 정상적인 경험 영역을 훨씬 벗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밝은 햇빛 아래에서 막 내린 눈을 본 적이 있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세탁업자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하얗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런 세탁소를 사용할 수 있는 한때 흰색이었던 셔츠를 몇 벌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 TV 프로그램에서 예수 시대의 사람들을 묘사한 사진을 볼 때마다 흔히 흰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흰색은 직장인들이 입기에 실용적인 색일까요?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워지거나 얼룩이 생기기 쉽고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 더 어두운 색을 입었고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반짝이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본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옛적부터 계신 분(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과 유사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단 7:9)**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빛이 그에게 비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밝게 나타나셨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극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연이나 콘서트가 있으면 백스테이지에서 할 일이 많았죠. 특정 콘서트에서 저는 큰 스포트라이트 중 하나를 조절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통해 어디로 누구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리스트가 솔로를 연주할 때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고 청중의 관심을 이 특정한 음악가에게로 돌렸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빛나는 것처럼 보인 것은 외부 조명이 그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밝게 빛난 이유는 그 빛이 그분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영광의 일부에 대한 계시를 본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 **4 And Elijah appeared to them with Moses, and they were talking with Jesus.**

The Lord Jesus in His changed state is joined by two Old Testament prophets; Elijah and Moses. Why these particular two? Well, Moses who died 1400 years prior to this event represents the law. Jews commonly referred to the commands that God gave to Moses as the “Law of Moses.” They



knew of course that they came from God but in the Jewish mind they were forever associated with Moses.

Elijah “left” the earth 900 years before this meeting on the mountain. You will have noted that I didn't mention his death. That is because God took him up to heaven whilst still alive in a whirlwind (2 kgs 2:1-11). He is here representing the prophets. So Moses and Elijah represent the two divisions of the Old Testament; the law and the prophets.

The two prophets also have some other significant things in common. Both were faithful servants who suffered due to their obedience. And even more significantly both had encounters with God on a mountain. I'm sure that you remember the incident in which Moses asked to see, or glimpse God's glory (Ex 33). Moses asked to see God's face but God tells him that it would be too much and would kill him. God puts him in a cleft of a rock and then shows him only his “backside.” In Elijah's case he was on Mount Horeb. He does not see God but God speaks to him in a gentle whisper (1 kgs 19).

Both prophets were also associated in other ways. Both had eschatological roles, both had something to do with end times. Moses promised that the Lord would raise up “a prophet like me” and admonished the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is prophet (Deut 18:15). Elijah it was prophesied would return “before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comes” (Mal 4:5).

Let us consider a couple of practical questions next. The first is how did Peter, James and John know it was Elijah and Moses? We are left to speculate a little here. Did their appearance in some way reveal their identity? Were they wearing little name tags? “Hello I'm Elijah.” Possibly, we don't know how exactly they appeared.

Was their identity revealed to the disciples through the Holy Spirit. This is certainly possible. Sometimes, people worry that they won't recognise or be recognised by the loved ones in heaven. I think I'm on pretty safe theological ground when I say this won't be the case. When we get to heaven we will be met by all those we knew who loved Jesus and have gone on before us. It is one of the wonderful moments of joy we have to look forward to. We will be reunited with parents, siblings, family members and friends from whom we have been temporarily separated.

Or did the identity of Elijah and Moses become apparent by what was being said. This leads on to our second question. What were Jesus, Moses and Elijah speaking about? Mark does not say, but luckily for us Luke does. This is what he tells us.

###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decease which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Luke 9:31)**

So Elijah and Moses were interested in the outworking of God's plan through Jesus. They spoke about what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Or more simply they spoke about His glorious death that was soon to occur.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 **4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변화된 상태의 주 예수님은 구약의 두 선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 왜 이 두 명일까요? 이 사건보다 1400 년 전에 죽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의 마음에서 그들은 영원히 모세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산에서 이 모임을 갖기 900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왕하 2:1-11). 그는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두 부분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두 선지자는 또한 몇 가지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받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일을 기억하시죠 (출 33 장).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위틈에 두신 다음 그에게 그의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경우에 그는 호렙 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왕상 19).

두 선지자는 또한 다른 방식으로 연관되었습니다. 둘 다 종말론적 역할을 했고 둘 다 종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주목하라고 권고했습니다(신 18:15). 엘리야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말 4:5)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외모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을까요? 그들은 작은 이름표를 달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보다 앞서 간 모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대해야 할 놀라운 기쁨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헤어졌던 부모, 형제자매, 가족, 친구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정체가 그들이 말한 내용으로 분명해졌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에 대해 말했습니까? 마가는 알려주지 않지만 다행하게도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누가복음 9:31)**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더 간단하게 그들은 곧 일어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5 Then Peter answered and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and let us make three tabernacle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6 because he did not know what to say, for they were greatly afraid.**

There are some situations in life in which it's difficult to know what to say. When someone has just lost a family member or friend. Or when someone has just received some terrible news. In these situations you may be well advised to just be lovingly present. To not blurt out something silly in haste but just be silent and show in this way you care.

Peter here may well have been better to keep his mouth shut. But once again he hastily speaks out. Perhaps his words represent the thoughts of James and John, but this is not stated explicitly. Both Mark and Luke in their respective gospels say he spoke without really knowing what he was saying. He was, along with James and John terrified by the whole event.

His suggestion is that the disciples erect tabernacles, tents or huts for Jesus, Moses and Elijah. How does his suggestion strike you? Is that the first thing you would have thought of? What lies behind this suggestion? Well, clearly Peter sees this situation as being good. It was certainly better than the one Jesus recently told them about. Peter as we have seen rejected the idea of a messiah who was to suffer and be killed. The Jews in general had no concept of a returning Messiah. The Messiah was to come and lead the people to freedom from their oppressors. Not come, die and then come again. So Peter seems to be suggesting that they stay here up on the mountain in the presence of the

glorified Jesus forever? As before when Peter spoke up to rebuke Jesus he is speaking rashly and impulsively. He is again thinking only from a human perspective and not seeing things from God's viewpoint. The Lord Jesus was sent with a mission to accomplish. That mission was not to live in a tent up on a mountain. How will God respond to Peter's idea? Let's read on.

**5**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인생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방금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또는 누군가가 방금 끔찍한 소식을 받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단지 가만히 있으라는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어리석은 말을 불쑥 내뱉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여기서 베드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는 서둘러 말합니다. 아마도 그의 말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을 대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복음서에서 마가와 누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제자들이 예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장막, 천막 또는 오두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이 당신에게 어떤 인상을 줍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걸 가장 먼저 생각했을까요? 이 제안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음, 분명히 베드로는 이 상황을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확실히 예수께서 최근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재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와서 죽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영원히 여기 산에 머물 것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위해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경솔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취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산 위 천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계속 읽어 봅시다.

**7 And a cloud came and overshadowed them;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Hear Him!” 8 Suddenly, when they had looked around, they saw no one anymore, but only Jesus with themselves.**

God the Father appears on the scene represented by a cloud. It should be, for bible readers a familiar cloud. It is the cloud of God's glory traditionally known as the *Shekinah*.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a “cloud” is frequently used to illustrate God's presence and protection (Exod 16:10, Num 9:15-16). On this occasion the cloud appears to descend and overshadow Jesus, Moses and Elijah. From the cloud God the Father speaks. The voice from the cloud of glory makes it clear that Jesus was not on the same level as Elijah and Moses. They were servants that God had used greatly, it was right that they be honoured and respected. But this was not just another prophet or servant like them, this was His beloved Son. Therefore the disciples are to hear, understand and obey His words. This word from God served as conformation to the disciples that Jesus had spoken accurately about what would happen to him; rejection and death. They had tried to rebuke Him and deny that this would happen. God's words here put their rejection to bed. This is part of God's design, this is what He wants they are to accept.

When the cloud ascends the disciples find that Moses and Elijah have gone. They are once again alone on the mountain with the Lord Jesus. Let us read on.

**7**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8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구름으로 대표되는 장면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성경 독자들에게 친숙한 구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쉐키나*로 알려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출 16:10, 민 9:15-16). 이때 구름이 내려와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덮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구름에서 나오는 음성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들이니 존귀와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선지자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 배척과 죽음 - 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꾸짖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부인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주 예수님과 함께 산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9 Now as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He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the things they had seen, til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10 So they kept this word to themselves, questioning what the rising from the dead meant.**

As the group returns down the mountain the Lord Jesus commands them again to keep all they have witnessed a secret. We have spoken on a number of occasions about Jesus' repeated calls for secrecy. The great danger was always that people would misunderstand His true mission and purpose. That they would seize upon one aspect of His identity and try to manipulate Him to their ends. We can very well imagine how people would react if they knew Jesus could “glow like a light” and talk with great prophetic figures from the past. Interestingly on this occasion there is a time limit set for how long they must keep quiet on this matter. Once Jesus has been killed and then risen again they are free to tell everyone what they saw on the mountain. There are many saying of Jesus contained within the gospels that can only be understood following the resurrection. The disciples keep their word and keep what they have seen and heard to themselves. However as they trudge down the mountain they cannot help but discuss exactly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t. It's really quite simple to explain. It refers to someone who has been confirmed as being dead coming back to life. There were examples in the Old Testament of this happening (2 Kgs 4). So it really shouldn't have puzzled the disciples that greatly. Once again we witness a lack of faith in the disciples in thinking such a thing couldn't happen to Jesus. Let us continue.

**9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다. 10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주 예수님은 그들이 목격한 모든 것을 비밀로 지키라고 그들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우리는 비밀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큰 위험은 항상 사람들이 그분의 진정한 사명과 목적을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정체성의 한 측면을 붙잡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빛처럼 빛날” 수 있고 과거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우에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그들은 산에서 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부활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산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면서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의논하게 됩니다. 말로는 정말 간단합니다. 죽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다(왕하 4).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목격합니다. 계속합시다.

**11 And they asked Him, saying, “Why do the scribes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2 Then He answered and told them, “Indeed, Elijah is coming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And how is it written concerning the Son of Man, that He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treated with contempt? 13 But I say to you that Elijah has also come, and they did to him whatever they wished, as it is written of him.”**

The disciples are puzzled by things. They were just simple fishermen, without great academic training. So, who better to ask for an explanation than Jesus. As good, God fearing Jewish men they were familiar with the Old Testament. The prophet Malachi very clearly prophesied that Elijah would come before the Messiah. In Malachi 4:5-6 we read the following.

**5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6 And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trike the earth with a curse.”**

So the disciples wondered, quite naturally, “If Jesus is the Messiah, then where is Elijah, shouldn't he have come first?” Jesus explanation I think is much clearer in Matthew's gospel. Those that say Elijah must come first are absolutely correct. He comes and begins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In effect he gets things ready for the coming Son of Man. The Lord Jesus is of course referring here to John the Baptist. John was sent by God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the Messiah was coming. The people were to heed his words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repent and turn back to God. As we know from scripture many, even his enemies held him to be a holy man and righteous man. Lots of people listened and took his words to heart. However we know how his story ended. He was arrested, imprisoned and later murdered. Since Jesus forerunner had been treated in this terrible way the disciples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the same fate awaited the Messiah. This was something they found difficult to understand or accept. But it was essential that they did grasp this truth so that they would be prepared for what was to come.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what the disciples who had not gone up the mountain and been doing in the meantime.

**11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한 단순한 어부였습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남성인 제자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5-6 에서 우리는 다음을 읽습니다.

**5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가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먼저 와야 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마태복음이 훨씬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사실상 엘리야는 오실 ‘인자 Son of Man’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심지어 그의 적들도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압니다.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나중에 살해당했습니다. 예수의 선구자가 이처럼 끔찍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동일한 운명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일에 대비하려면 이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산에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 **1 From the mountain down to the valley**

The Apostle Peter is a very relatable character. At times, he is bold and courageous at other times rash and impulsive. Sometimes a man with just the right words to say, at other times too quick to open his mouth and speak. He resembles most of us. So we can probably understand in some ways how he felt up on that mountain top. Standing in the presence of God, in not quite His full glory. Accompanied by two mighty heroes of the faith in Moses and Elijah. We can probably understand his motivations for wanting to stay forever up on that mountain top. But that of course is not God's plan for His disciples.

We are not to confine ourselves to the mountaintop. We are to carry with us God's glory down into the valleys. I am of course using figurative language here. Let me make my point clear. Many Christians are quite happy to confine their faith to the church and their homes. In the church and at home they are safe, surrounded by fellow believers. This is the mountaintop. For many believers the attitude is, why not just camp out here and live an easy life. Why make life difficult or hard. The answer to this was spelled out in our last sermon. A true disciple is to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Christ. This is a call to sacrifice and service. On the mountaintop, the church or your home there are limited opportunities for sacrifice and service. If you really want to serve you must go down into the muddy valleys that is where the lost and needy are to be found. That was where the Lord Jesus went and we are to follow.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말할게 세가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매우 공감가는 인물입니다. 때때로 그는 대담하고 용감하며 때로는 경솔하고 충동적입니다. 때로는 딱 맞는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경솔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니. 모세와 엘리야. 믿음의 강력한 두 영웅이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산 정상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꼭대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골짜기까지 하나님의 영

광을 가지고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서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요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교회와 가정에 국한시키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그들은 동료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안전합니다. 이곳은 산꼭대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태도는 그냥 여기에서 지내면서 쉬운 삶을 살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삶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봉사에 대한 부름입니다. 산꼭대기나 교회, 가정에서는 희생과 봉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싶다면 길을 잃고 궁핍한 자들을 찾을 수 있는 진흙탕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은 주 예수님이 가신 곳이며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 **2 This world is not our final home**

I am sure that you love you home, your city, your nation and this earth. Despite it's fallen state there are still many wonders to enjoy and appreciate. The natural world never ceases to amaze. How can we look at the flowers of spring and not marvel at God's creativity. So, it's only natural that we love and become attached to what we know and experience.

The disciples Peter, James and John were proud Jewish men. No doubt they wanted the best for their nation. They wanted the Roman's out so that they could govern themselves. Peter it seems was content to live up on the mountain and escape from reality altogether. What he had forgotten was that this world, and all in it is temporary. In God's plan for the future all we see around us will disappear.

We should therefore live with this thought in mind. We should be wary of becoming too attached to the things of this world. We should remember that the troubles we endure are also only temporary. They too will one day pass and fade from our memories. We have a glorious future awaiting us. So, let us live with that thought in mind.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집, 당신의 도시, 당신의 국가, 이 지구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즐기고 감사해야 할 많은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자연 세계는 놀라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봄의 꽃을 바라보며 어찌 하나님의 창조에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긍심이 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그들의 국가를 위해 최선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살면서 현실에서 완전히 도피하는 데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고난도 일시적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 **3 There is more to reality than what we can see**

In today's passage Peter, James and John were given a brief glimpse into the supernatural. It terrified them. Living as we do in a material world we are often unaware of the spiritual world around us. It is good therefore to remember that there is more to reality than what our senses can perceive. There is a whole other dimension that in most cases we never experience. Just because we cannot sense this dimension does not mean it does not exist, or that it isn't dangerous.

This is why I caution you that things like tarot cards, fortune-tellers, visiting a shaman or practising

Yoga are not harmless acts of fun. There is a reality of evil that lies behind these things. They are tools used by the evil one.

They can in some cases serve as portals for the demonic to enter and influence your lives or the lives of those around you. So it's good to remind ourselves from time to time that there is more to reality than what we can see. Let us stay strong in our faith and trust that the Holy Spirit will guide and protect us from the evil all around us.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고있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현실에는 우리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원을 감지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타로 카드, 점쟁이, 무당 방문 또는 요가 연습과 같은 것들이 무해한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 뒤에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마가 들어와 당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굳게 지킵시다.



